 기획재정부		보도자료	
보도일시	2021. 10. 28.(목) 14:30	배 포 일시	2021. 10. 28.(목) 14:00
담당과장	재정혁신국 재정전략과장 임영진 (044-215-5720)	담당자	이주호 사무관 juholee14@korea.kr
	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장 이명선 (044-215-5310)		유예림 사무관 yerim@korea.kr
	국고국 국채과장 김이한 (044-215-5130)		최시훈 사무관 choisihoon@korea.kr
	산업부 수소경제정책과장 이옥현 (044-203-3950)		박영진 사무관 ojin318@korea.kr

- ① 11월 국고채발행 규모, 단기물 중심으로 대폭 축소,
 ② 4분기 경기회복력 보강 위해 재정투자 집행 박차
 -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 -

□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021년 10월 28일(목) 14:00,
 「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」를 주재하였음

< 제8회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요 >

- ▶ 일시/장소 : 2021. 10. 28.(목) 14:00~16:00 / 한국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
- ▶ 참석자 : (정부) 기재부 제2차관(주재), 교육부·과기부·산업부·환경부·고용부·
 중기부·문체부·특허청·방통위 등
 (민간) KDI·조세연 등 민간위원 및 외부 전문가

- 오늘 회의에서는 ①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,
 ②4분기 경기회복력 보강을 위한 재정투자·집행 강화 방안,
 ③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방향 등을
 집중 논의하였음

【 ① 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대응 】

◇ 최근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여 11월부터 국고채 발행물량을 단기물 중심으로 축소 조정

- 향후 국채시장을 예의주시하며, 필요시 긴급바이백 등 적기 시행

□ 최근까지 국고채는 안정적 발행을 지속하고 있으나, 국채 유통시장의 경우 대내외 통화정상화 기조 등으로 최근 들어 금리가 크게 상승

- (발행시장) 1~9월간 151.5조원 국고채를 발행하였으며 (연간 발행한도 대비 81.3%) 300%에 육박하는 응찰률을 지속하는 등 안정적으로 발행량 소화

- 특히, 외국인 투자가 우리경제 견조한 펀더멘털 등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증가('21.1~9월 +33조원)

- (유통시장) 9월 이후 인플레 우려, 대내외 통화정책 정상화 기조 등으로 글로벌 금리상승에 동조화되며 국채시장 변동성 확대, 금리 큰 폭 상승

* 9.1~10.26일 주요국 10년금리 변동폭(bp) : <豪>+65 <韓>+55 <英>+49 <美>+40 <獨>+26

□ 안도걸 차관은 재정의 경제 버팀목 역할 수행, 순조로운 통화정책 정상화 등을 뒷받침 하기 위해 국채시장의 안정적 관리가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

- 안 차관은 금일 오후 발표될 11월 국고채 발행계획에서 최근 변동성이 과도한 단기물 등을 중심으로 발행물량을 과감하게 축소 조정하는 한편,

- 향후 국채시장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긴급바이백 적기 시행, 한은과의 정책공조 등을 통해 국채시장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

【 ② 경기회복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집행 강화 방안 】

- ◇ 4/4분기 재정집행 극대화 → 연간 600조원(98%) 집행 추진
- ◇ 공공기관(64.3조원), 민자사업(17.3조원) 투자발굴·집행 목표 달성 추진

□ 코로나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3분기까지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, 공공기관·민자사업 투자 등 정책 노력 경주

① 정부재정의 경우 역대 최고수준의 조기집행* 등을 통해 3분기까지 전년보다 33.9조원이 증가한 472.8조원(속보치) 집행

* 중앙재정 상반기 조기집행률(%): ('17) 59 ('18) 62.1 ('19) 65.4 ('20) 66.5 ('21) 68.2

② 공공기관은 주거안정 지원, 한국판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중심으로 3분기까지 전년동기 보다 1.2조원 증가한 역대 최대규모인 44.8조원 투자

* '21년 공공기관 분기별 투자실적(누적, 조원): ('21.1/4) 15.5 (2/4) 33.9 (3/4) 44.8

③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도로·철도 등 기존유형과 더불어 新유형의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3분기까지 13.3조원 달성

* '21년 민자사업 투자발굴·집행실적(누적, 조원): ('21.1/4) 7.9 (2/4) 11.1 (3/4) 13.3

⇒ 안도걸 차관은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정부 부문이 3분기 연속 ('20.4/4~'21.2/4) 경제성장률에 플러스(+) 기여하는 등 경기 회복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해왔다고 평가

* 분기별 실질GDP 성장률(%): ('20.4/4) 1.1 ('21.1/4) 1.7 (2/4) 0.8 (3/4) 0.3

* 분기별 정부기여도(%p): ('20.4/4) +0.2 ('21.1/4) +0.4 (2/4) +0.3 (3/4) +0.0

□ 그러나, 3분기 GDP는 전기 대비 0.3% 성장을 기록하면서 그간의 빠른 회복세가 일부 조정되는 모습

○ 그간의 높은 성장세에 따른 기저 효과와 함께, 코로나 재확산,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민간소비 및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세가 일부 제약

○ 정부소비는 적극적 재정집행, 백신 구입 등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했으나, 정부투자가 건설공사 지연 등으로 감소하면서 정부 전체 기여도는 +0.0%p 수준(정부소비 +0.2%p, 정부투자 △0.2%p)

□ 따라서, 남은 4/4분기는 금년도 경제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 정책 역량을 결집해야 할 시기

- 높은 수출 성장세 지속, 단계적 일상 회복과 함께 4/4분기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나,
- 글로벌 공급차질 인플레이션 장기화 가능성, 미·중 경기둔화 우려 등 정부의 경기 대응 역량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

□ 4/4분기 재정운영은 경기 회복세 강화를 뒷받침하도록 가용재원을 총동원하여 재정 집행을 제고와 공공기관·민자사업 투자 강화에 역점

① 중앙재정은 역대 최고수준의 집행률 98%를 목표로 올해 총지출 600조원(전년대비 +50.5조원, +9.2%)의 집행 추진

* 중앙재정 연간 집행규모(조원): ('18) 427.5 ('19) 473.9 **(20) 549.5 (21 계획) 600**

집행률(%): ('18) 96.7 ('19) 97.8 **(20) 97.7 (21 계획) 98%이상**

※ 지방재정 439조원(전년대비 +30.4), 지방교육재정 80조원(+0.3)의 목표 달성 독려 병행

- 금번 4/4분기에는 전년동기(114.8조원) 대비 11.7조원 증가한 **126.5조원(+10.2%) 이상을 집행할 계획**

- 특히,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 손실보상, 상생 소비지원금, 소비쿠폰 등의 사업은 각별히 관리

▪ 어제(10.27일)부터 신청 및 지급이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지급(약 2.4조원, 약 80만명)을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

▪ 11월부터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재개되는 소비쿠폰* (10.15일 기준 예산잔액 2,300억원)의 원활한 집행 지원

* ①농수산 ②외식 ③공연 ④숙박 ⑤체육 ⑥영화 ⑦여행 ⑧전시 ⑨프로스포츠 등 9종

▪ 10월부터 추진중인 상생 소비지원금(10.22일까지 캐시백 1,456억원 발생) **11.15일 첫 캐시백 지급**

② 공공기관의 경우 올해 64.3조원의 투자(전년대비 +3.3조원)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집행점검회의 등을 통해 집중 관리

- 4/4분기 전년동기(17.4조원)보다 2.1조원 증가한 19.5조원(+12.1%) 이상을 집행할 계획

- 특히, ①3기 신도시 용지매입비, 건설비 등 주거안정지원(LH), ②코로나19 극복 가게 정상화 및 기업 재기지원(캠코), ③철도 등 사회기반시설 확충(SOC공기업), ④전력·가스 등 친환경·에너지·안전시설 확충(발전 공기업) 등 4대 분야 투자 집행을 중점 관리

③ 민자사업의 경우 3.5조원 규모의 계속사업 투자 계획을 차질 없이 달성토록 집중 관리

- 특히, 이천-오산 고속도로(31.2km, 1,811억원), 신분당선(용산~강남) 복선전철 1단계(2.5km, 1,597억원) 등 핵심 프로젝트의 목표工期 달성을 중점 관리

- 또한,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통해 당초 목표한 13.8조원의 신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

□ 재정당국은 이러한 재정투자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철저하게 집행을 관리할 예정

① 중앙·지방재정, 공공기관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해 이·불용 발생규모 최소화

② 도로·철도·항만 등 SOC 사업의 노선·공정별 사업 예산의 집행실적을 수시 점검하여 공정 진척도에 맞춰 사업간 예산을 탄력적으로 증·감액 조정

③ 철근 등 관급 원자재 공급의 탄력적 조정*, 행정 인허가·자금 교부 등 행정 절차의 신속 진행 등 집행 애로요인을 실시간 파악·해결하는 행정협의 시스템 가동

* 철강 회사에 관급철근 공급확대 협조 요청(조달청, 11월), 관급자재 우선순위 현장에 우선 투입 등

□ 마지막으로, 안 차관은 **11.5일부터** 시작되는 **국회 예결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심사도** 사전에 적극 준비하겠다고 밝혔음

- 「**단계적 일상회복 조치**」를 뒷받침하는 **방역인프라 확충, 소상공인 피해 지원** 등 정부예산안 제출(9.3일) 이후 발생한 **예산 증감 소요를 선제 파악·검토하여 국회 예산 심사에 철저히 대비하고,**
- 내년 예산안이 **법정시한(12.2일) 내** 국회를 통과하도록 예결위의 효율적 심사를 적극 뒷받침하는 **법정부 협조 체제를 가동해** 나가겠다고 밝혔음

【 ③ 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방향 】

◇ 수소의 생산-저장-운송-활용 등 3대 분야별 핵심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는 데 초점을 두어 금년(0.8조원) 대비 54% 증액한 1.3조원 규모로 예산 편성

□ (**'22년 예산 편성전략**) 정부는 '**수소全产业链 생태계(생산→저장·운송→활용) 동시 구축**'을 목표로

- ①5개 부처 45개 수소사업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편성·관리,
②**모든 사업을 주기별로 재분류**하고 세부목표* 설정,
③부처·공공기관·민간 등의 **긴급한 애로사항 신속 해결** 등 **3대 분야에 중점**을 두고 내년 예산을 편성

* [생산] 현재 100% 그레이수소 구조를 '50년까지 100% 청정수소로 전환
[저장·운송] '23년 액화수소 상용화를 대비한 기술개발 및 안전시스템 구축
[활용] 입지규제 완화 등을 통한 '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, 수소차 20만대 구축보급

□ (**'22년 투자규모**) '17년 약 750억원 대비 17배 이상, '21년 0.8조원 대비 54% 이상 증액한 **총 1.3조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**

* 수소 예산(조원): ('17) 0.07 → ('18) 0.1 → ('19) 0.4 → ('20) 0.6 → ('21) 0.8 → ('22안) 1.3

□ (투자 중점) 탄소중립 이행전략 상 투자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
핵심사업을 선별, 집중 투자

① (생산) 현재 100% 그레이수소 공급구조를 '50년까지 100% 청정수소로 전환하기 위해 ①태양광·풍력 등 재생에너지 집적지를 중심으로 잉여전력과 연계한 3개 그린수소 생산기지 신규 조성

- ②울산 등 대형 산업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·저장 하기 위한 대규모 저장소 확보, 동해가스전을 활용한 탄소 주입 가능성 평가 등 CCS(Carbon Capture and storage) 통합실증 모델 개발(R&D) 지원

* 다부처 대규모 CCS 통합실증기반구축(R&D): ('21) 159 → ('22안) 199억원

② (저장·운송) '23년 액화수소 상용화에 대비하여 ①저장 용량을 10배 향상할 수 있는 액화저장용기 기술개발(1회 수소차 60대 → 600대 충전 可) ②액화수소 안전성 검사시스템 신규 구축*

* 액체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 등(R&D): ('22년 신규) 43억원
액화수소 검사기반 구축: ('22년 신규) 42억원

- ③수소 저장·운송차량* 보급물량 확대 지원(16→80대)

* 수소 튜브트레일러 지원(정부보조율 50%): ('21) 16 → ('22안) 80억원

③ (활용) 수소 활용 기반 교통, 생활 인프라 중점 투자

- (수소차) '25년까지 수소차 2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한 구매보조금 지원물량 약 90%확대, 수소상용차 핵심부품 국산화, 연료전지 성능제고(30만→50만km↑) 등 R&D 집중 지원*

* 수소모빌리티2.0R&D('22 신규 6개과제, 206억원): ①수소상용차 및 충전소용 저장용기, ②수소저장량 조절 제어기, ③연료전지 최적화 기술, ④열관리시스템 효율향상, ⑤수소상용차 전용플랫폼 공통기술개발, ⑥모듈화 전장부품 기술개발

- (충전 인프라) '25년까지 수소충전소 450기 달성을 목표로 입지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과 병행하여 신규 수소충전소 구축 대폭 확대

* 충전소 설치 가능지역 확대(도시공원 내 주차장 등), 인·허가 특례 도입('21.7월 완료) 등을 통한 신속한 확충 추진

수소차 및 수소차충전소 보급 목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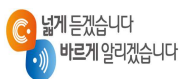
구 분	'21년 (전년대비)	'22년 (전년대비)	'25년
수소차(누적)	2.6만대 (+1.5만)	5.4만대 (+2.8만)	20만대
수소차 충전소(누적)	180기 (+110)	310기 (+130)	450기

*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 : ('21) 4,416억원 → ('22안) 8,928억원

(사업내용: (수소차)대당 22.5백만원 정부 보조, (충전소)1기당 50% 정부 보조(승용차기준))

- (수소기반 생활 인프라) '22년에 수소연료 활용 공동주택 보급, 수소버스 운행 등 도시내에서 수소 기반의 교통·에너지 등 인프라가 구축되는 수소시범도시* 3개소(울산, 전주·완주, 안산) 조성 지원 완료

* 총사업비 1,200억원(국비 600억원, 지방비 600억원 / 도시당 400억원), '22정부안 240억원



기획재정부 대변인
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@korea.kr



◇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,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구분	담당부서		담당과장	담당자
경제회복력 지속을 위한 재정투자집행 강화 방안	기재부	재정관리총괄과	이명선 과장 (044-215-5310)	유예림 사무관 (044-215-5311)
		재정집행관리과	김완수 과장 (044-215-5330)	이해인 사무관 (044-215-5331)
		재무경영과	이재완 과장 (044-215-5570)	전성헌 사무관 (044-215-5633)
		민간투자정책과	김준철 과장 (044-215-5450)	김선애 사무관 (044-215-5451)
최근 국채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	기재부	국채과	김이한 과장 (044-215-5130)	최시훈 사무관 (044-215-5131)
수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한 내년도 재정투자 방향	산업부	수소경제정책과	이옥헌 과장 (044-203-3950)	박영진 사무관 (044-203-3952)
	기재부	산업중소벤처 예산과	김위정 과장 (044-215-7310)	윤지원 사무관 (044-215-7311)